

# “복선전철 붕괴 교각 설계부터 잘못”

〈강릉·원주〉



◇지난 1월24일 강릉시 성산면 원주~강릉 철도 공사 구간에서 남대천을 연결하는 아치형 교각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있었다. 강원일보DB

## 철도시설공단 1차 조사 결과 “온도 변화 반영 안돼”

【강릉】속보=원주~강릉 복선 전철 공사 구간에서 무너져 내렸던 아치형 교각 가설 시설물(본보 1월25일자 5면 보도)에 대한 붕괴 원인이 설계 문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지난 31일 “원주~강릉 복선 전철 공사 구간의 아치교를 받치기 위한 가설 시설물이 붕괴된 원인은 온도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설계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시공 과정 중에서도 온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도 붕괴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으며 이와 관련해 추후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당초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1차 조사를 통해 가설 시설물에 대한 붕괴 원인의

로 급격한 온도 변화에 의한 것으로 밝혔지만 정밀 조사 결과 설계상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것.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 관계자는 “설계상 온도 변화를 예측하지 못했던 이유 등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는 아치형 교각에 대한 설계를 변경해 공사를 재추진할 계획이다. 임재혁기자



강원건설단체연합회(회장 오인철)는 31일 오전 평창군 대관령면 버치힐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갖고 강원건설 활성화를 위한 당면 과제들을 협의했다.

## 강원건설 실적 악화

5월 2932억원 수주·전년보다 26% 줄어

강원도내 건설 수주 실적이 악화되고 있어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북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강원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도내 건설 수주액은 293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73억원 보다 26% 줄었다.

전국 수주액이 10조6826억원으로 지난해보다 2.7%(2932억원)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동계특수가 사실상 완료된 여파가 실제로 나타나

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민간부문에서의 실적 저조가 심각하다.

지난해 3326억원을 수주한 반면 올해는 1933억원에 불과, 41% 급감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도내 전반적인 공공업 생산도 전년보다 11.2% 감소했다.

품목별로 보면 전기장비(-70.9%), 음료(-33.8%), 1차금속(-30.7%), 자동차(-22.9%)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안은복 rio@kado.net

## 오인철 건협 강원도회장, 1일 한국국토정보공사 합동간담회 참석

기사입력:2016-05-31 14:18:00



오인철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장은 1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건설 전북도회(회장 정대영), 한국국토정보공사(강원본부장 박봉수, 전북지역본부장 송영순)와 함께 공간정보시스템계 연계한 지역건설산업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합동 간담회를 갖는다. 한편 강원도회는 지난달 31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버치힐 2층 회의실에서 2016년도 제2차 정기회의(사진)를 개최했다.

권해석기자 haeseok@